

중동 평화협상 교착 국면... 원·달러 환율 1500원 위협

美 트럼프 '군사작전 재개' 언급
국내 원유 비축분 3개월치 불과
美 인플레이·금리 인하 가능성 등
고유가 장기화·유가 상승 요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중동사태'의 확산 우려가 커져서다.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도 늦어지는 만큼,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0.6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주간 종가보다 0.8원 오른 수준으로, 지난 4월 7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오전 중 환율이 장중 1499.80원까지 오르면서 달러당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등 달러 강세가 뚜렷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교착 국면에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환전소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를 언급하면서 확산 우려가 확산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휴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상태(unbelievably weak)에 있다. (지금의 평화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을 일컬어 "절대 수용 불가능(totally unacceptable)하다. (이란의 조건은) 쓰레기(a piece of

garbage)"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는 같은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프로젝트 프리덤을 통한) 선박 호위 작전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했으나 휴전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했는데, 해당 작전을 재개하고 이후 추가 군사작전에도 나설 수 있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나선 것

로 풀이된다.

종전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란 측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종전 조건으로 내건 미국과 종전 이후 별도의 협상을 요구하는 이란의 견해차가 분명해서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이란에 종전 조건으로 ▲핵무기 개발 포기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비축 농축 우라늄 반출 ▲핵시설 해체 ▲지하 핵 활동 금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및 반출 등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해상봉쇄 해제 등 선제적 종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대체 원유 수입 지원 및 비축량 공급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수출 및 소비를 고려한 비축분은 약 3개월분에 불과하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도 원·달러 환율에는 위협 요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져서다. 미 노동통계국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8%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높은 수치로, 지난 2023년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전년 대비 상승이다.

전문가들은 전쟁과 고유가 영향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러나면서 달러의 상대적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4월 CPI가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라며 "유가 급등이 에너지 물가를 넘어 서비스 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징후 가운데,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제하적 추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고유가 현상 장기화 혹은 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잠재해있다"라며 "미국내 물가 압력이 정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미래주거,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세요”

건설사, 홍보관 개관 이어져
삼성물산, 디자인그룹 SMDP 협업
'스위블' 조망특화 평면도 등 준비
현대건설, 핵심구조물 실물크기 구현
모베드 등 로보틱스 기술 선보여

건설사들이 앞다퉀 입지의 재건축 수주를 위해 홍보관을 줄줄이 열어 사업 제안은 물론 주거 신기술까지 선보이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홍보관을 연다.

단지명으로 제한한 '래미안 일루체라'를 그대로 옮겨 놓은 축척 모형 등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주거 단지의 모습을 선보이며, 구체적인 사업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1대 1 상담 자리도 마련된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디자인 그룹 'SMDP'와 협업해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을 앞세운 설계안을 제안했다.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살려 조합원 46

명 모두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조망 시뮬레이션으로 각 세대에서 보이는 한강 조망과 인근 건축물과의 간섭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100%는 물론 일반 분양 87세대까지 한강 조망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 강남 한강변 아파트의 고질적인 과제였던 '북측 한강 조망'과 '남향 일조권' 사이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스위블(Swivel)' 조망특화 평면도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금융조건으로는 사업비 전체를 한도 없는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고 ▲이주비 LTV 100% ▲HUG 보증수수료 '제로' ▲대출 없이 입주 시 분담금만 100% 납부 ▲계약 후 30일 내 환급금 100% 지급 등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 홍보관으로 미래 주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관은 단지를 순환하며 모든 동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핵심 구조를 실물

크기로 구현했다. 냉난방과 공기질이 관리되는 실내 환경에서 산책과 러닝, 휴식이 가능한 '순환형 커뮤니티'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여줬으며, 입주 전 전용 이동 체계인 수요응답교통(DRT) 무인셔틀을 배치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이동 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단지 내에 적용될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도 선보였다. 모베드(MobED)와 나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실물 전시와 구동 영상이 결합돼, 단지 내 이동과 서비스, 안전 관리까지 확장되는 미래 주거 환경을 직관적으로 보여줬다. 단지 모형은 총 5175세대, 30개 동의 배치와 한강,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을 아우르는 구조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로만 볼 수 있었던 압구정3구역의 미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주거 단지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모습. /뉴시스

상호금융, 3.61% 예금 금리로 수신 방어

증시 머니무브 흐름 대처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증시로 이동하는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 연 4%에 육박하는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수신 경쟁이 치열하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1년 만기 기준 정기 예금 평균 금리는 3.25%다. 올해 초 예금 평균 금리가 3%를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가장 높은 정기예금 금리는 연 3.61%다. 지난 2월 업계 최고 예금 금리가 3.16%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0.45%포인트(p) 오른 셈이다.

연 3.60%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DH·HB·JT저축은행 등을 위주로 총 8개 예금 상품이 연 3.60%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 3.58% 상품도 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2~3% 수준에서 형성돼 왔다. 연말·연초 만기 자금 유치를 위한 수신 경쟁이 강화되는 시기에 최고 금리는 대체로 연 3.15~3.17% 수준에서 머물렀다.

상호금융권도 예금 금리를 일제히 높이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연 3.6~3.8% 사이의 정기 예금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신협에서는 포산·경동·효천신용협동조합이 연 3.7% 금리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을 판매 중이다. 성삼우리신용협동조합도 연 3.62% 금리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연 4%가 넘는 저축성 상품도 있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연복리 4% 고정이율이 적용되는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OK저축은행이 최대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OK이자도받는상조적금' 상품을 내놨다.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어서면서 증시로 빠지는 자금을 막기 위해 수신 경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전월 대비 각각 2384억원, 7조3177억원씩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다"면서 "시중은행이 증시로 이동하는 자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또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은행, 퇴직연금 비대면 ETF 개편

하나은행이 손님의 쉽고 빠른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퇴직연금 비대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하나은행은 주식회사 코스콤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 대표 ETF 플랫폼인 'ETF CHECK'를 연계했다. 이를 통

해 손님은 ETF 상품의 실시간 호가와 복잡한 시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다. 손님이 보유한 퇴직연금 ETF가 미리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즉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을 도입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놓

치지 않고 수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관계자는 13일 "이번 개편은 손님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퇴직연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정보 제공과 거래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손님 중심의 비대면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중한 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